

1. 리더가 실현해야 할 사랑의 정치

① 수기치인(修己治人)

- 유가(儒家)의 학문이 가야 할 길
- “내성외왕지학(內聖外王之學)”
 - 내성 - 수기 : 실천을 통하여 자신을 완성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
 - 외왕 - 치인: 백성을 사랑하는 이상적인 정치인 어진 정치, 인정(仁政)을 베풀
- 내면적으로는 성인이 되고 외면적으로는 군주, 왕이 되고자 한다는 것
-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주관적 실천 - 수기의 길
 - 객관적 실천 - 치인의 길

② 주관적 실천

- 자신의 인격적 완성을 목표로 함
- 자기 내부의 합리성과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것

[군자불우불구]
 [내성불구, 부하우하구?]
 [君子不憂不懼]
 [(內省不疚, 夫何憂何懼?)

사마우가 군자에 대해 묻자, 공자가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君子不憂不懼)라고 답했다.

다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만 하면 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자기 안으로 돌아보아 거리낌이 없는데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內省不疚, 夫何憂何懼?)

『논어(論語)』, 「안연(顏淵)」

1. 리더가 실현해야 할 사랑의 정치

① 객관적 실천

- 내면적 완성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것
-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신과 만물의 조화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와 백성을 구하고 온전한 사회의 모습을 실현하는 것
- 사회적 실현의 구체적인 모습은 덕치, 즉 도덕의 실현을 근본으로 하여 정치를 행하는 것이며, 이때 백성들은 이에 감화되어 저절로 통치자를 따름

[위정이덕, 비여복신, 거기소이중성공지.]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而衆星共之.]

도덕의 실현을 근본으로 정치를 행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지만 모든 별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것과 같이 감화력이 절대적이다.

『논어(論語)』, 「위정(爲政)」

백성들을 정치적 역량으로 인도하고 형벌을 이용해 바로 잡으려 하면 백성들은 적발되어 벌을 받지 않는다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백성을 도덕적 감화력으로 인도하고 예절을 이용해 바로 잡으려 한다면 백성들이 적발을 피하여 벌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

『논어(論語)』, 「위정(爲政)」

[덕불고, 필유린]
 [德不孤, 必有鄰]

훌륭한 도덕을 갖춘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은데, 이는 반드시 그와 뜻을 함께하는 이웃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논어(論語)』, 「리인(里仁)」

1. 리더가 실현해야 할 사랑의 정치

① 도덕

- 많은 사람들이 항상 가까이하고자 하는 것
- 리더가 먼저 훌륭한 도덕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함

② 인(仁)에 대한 강조

[극기복례위인]
 [克己復禮爲仁]

안연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했다.

“자신의 사욕을 이겨내서 사람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라도 자신의 사욕을 이겨내서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귀의할 것이다. 인을 행하는 것이 자신에 달린 것인지 남에게 달린 것이겠는가?”

『논어(論語)』, 「안연(顏淵)」

- 『논어』 전체에서 공자가 인에 대해 이야기한 유일한 구절
- ‘인’이란 ‘사랑’, ‘인간다움’일 수 있으며,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이루기 위한 기본 전제
-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고 예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인이라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매우 추상적임
- 그러나 인과 예라는 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
- 인이 인간관계와 사회적 조화를 말하는 예와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룸을 알려줌

1. 리더가 실현해야 할 사랑의 정치

① 인(仁)에 대한 강조

공자는 의리를 해치는 이익에 대한 것, 은미(隱微)하여 잘 알 수 없는 천명에 대한 것, 크나큰 도여서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한 인에 대한 것을 적게 말하였다.

『논어(論語)』, 「자한(子罕)」

- 인을 구체적으로 정의 내린 적이 없고, 정의 내리기도 어려움을 보여줌
- 인은 인간에 대한 절실한 사랑에서 시작하여 자신과 남을 일치시킬 수 있는 마음과 행동
- 아랫사람에 대한 리더의 사랑, 인자함

[리인위미]
[里仁爲美]

살고 있는 마을에 어질고 후덕한 풍속이 있는 것이 아름답다.

따라서 거주할 곳을 선택한다면 것처럼 어질고 후덕한 풍속이 있는 곳을 택해야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다.

『논어(論語)』, 「리인(里仁)」

- 자신의 거주지도 인과 관련시킴
- 인이란 지혜로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 즉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인한 사람이 있는 곳을 택하여야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음

1. 리더가 실현해야 할 사랑의 정치

① 인(仁)에 대한 강조

인은 멀리 있는 것인가?

내가 인하기를 바라면 인이 바로 찾아오게 된다.

『논어(論語)』, 「술이(述而)」

- 인의 실천이 어려운 것이 아님

제자인 염구가 “저는 공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도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 힘이 그것을 다 실천하기에 부족합니다.”라고 하자,

공자가 “힘이 부족한 사람은 그것을 실천해보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것인데, 지금 너는 미리부터 한계를 설정하고 있구나.”

『논어(論語)』, 「옹야(雍也)」

- 공자는 끝까지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인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
- 공자가 끝내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버리지 못했으며 동시에 우리에게 세상이란 계속 나아질 것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게 만드는 부분

2. 리더로서 꿈꾸는 세상의 조화

☉ 예지용화위귀(禮之用和爲貴)

[예지용화위귀]
[禮之用和爲貴]

공자의 제자 유자,

“예의 모습은 조화로움을 귀하게 여긴다. 이러한 이유로 옛날의 뛰어난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에도 항상 이 조화의 정신을 아름다운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이 정신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원칙만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조화로움만을 중시하여 조화만을 생각할 뿐 예를 행하는 근본 취지에 따라 조절할 수 없는 경우이니, 이 또한 안 되는 것이다.”

『논어(論語)』, 「학이(學而)」

- ‘예’란 인간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조화
- 사회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에는 때로 관직제도나 법률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 등이 포함됨
- 인간관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 예는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외면적인 모습에도 드러나지만 내면적으로 간직하는 정신에도 포함되기 때문임
- 공자는 곳곳에서 예의 정신을 중시함

노나라 사람 임방이 예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묻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중요한 물음이다. 예는 사치스럽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편이 낫고, 상례는 형식적으로 잘 갖추기보다는 차라리 슬픔을 잘 나타내는 것이 낫다.”

『논어(論語)』, 「팔일(八佾)」

- 사치보다는 검소함,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

2. 리더로서 꿈꾸는 세상의 조화

㉠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형식의 변화

- 공자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형식의 변화를 수용함
- 이는 예의 기본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삼베로 만든 관을 쓰는 것이 예의이지만 지금은 명주로 짠 간단한 것을 쓰는데, 그것이 검소하므로 나는 요즘 대중들을 따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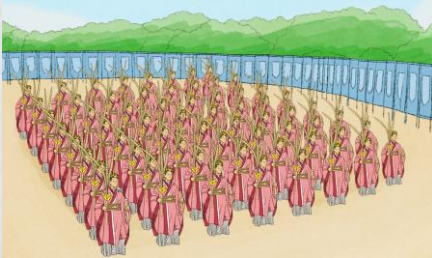
신하가 임금을 뵈 때 당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의이지만 지금은 당 위에서 절하는데, 그것이 교만한 태도이므로 나는 당 아래에서 절하는 것을 따르겠다.

『논어(論語)』, 「자한(子罕)」

- 무조건 과거의 형식을 지키는 것만이 예가 아님
- 일반 사람들을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두가 변하여도 자신만은 고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면서 예가 갖고 있는 본래의 정신을 손상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형식의 변화를 수용
- 리더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선도할 수 있어야 함

2. 리더로서 꿈꾸는 세상의 조화

㉠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형식의 변화



무너진 질서에 대한 공자의 탄식

“계씨는 천자의 제사에서만 추도록 되어 있는 팔일무를 자신의 뜰에서 추게 하였으니, 이러한 일조차 감히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하지 않겠는가?”

『논어(論語)』, 「팔일(八佾)」

- 천자만이 행할 수 있는 팔일무를 천자도 아니고 그 아래의 제후도 아닌 대부가 자신의 집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
- 공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예에 어긋나는 행동
-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나아가 국가를 전복시키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 당시에 노나라의 국정을 전횡하고 있던 맹손씨, 숙손씨, 계손씨 삼대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예법을 무시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공자가 얼마나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는지를 발견함
- 훼손된 예법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

2. 리더로서 꿈꾸는 세상의 조화

① 정명(正名)

- 이름을 바로 잡음
- 사회적인 조화로서의 예를 실현하기 위해 공자가 제창한 것

[군군, 신신, 부부, 자자.]
 [君君, 臣臣, 父父, 子子.]

정치에 대한 제나라 경공의 물음에 공자가

“군주가 군주답고, 신하가 신하다우며,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다워야 합니다.”

『논어(論語)』, 「안연(顔淵)」

- 예의 사회적 실현
 - 구성원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조화로운 사회
 -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국가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 당시 상하의 관계가 혼란스럽고 명분이 사라진 세상
- 공자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짐
- 정명은 춘추전국시대 명분과 실질의 문제라는 중요한 담론

2. 리더로서 꿈꾸는 세상의 조화

① 정명(正名)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자연스럽지 못하며, 말이 자연스럽지 못하면 어떤 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약이 일어나지 못하며, 예약이 일어나지 못하면 형벌을 적절하게 쓸 수 없게 되며, 형벌을 적절하게 쓸 수 없게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어떤 것에 대해 이름을 정하면 반드시 말로 할 만해야 하며, 말을 한다면 반드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논어(論語)』, 「자로(子路)」

- ‘이름’의 문제는 ‘말’ → ‘일’ → ‘예약’ → ‘형벌’의 과정
-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지의 문제로 귀결됨
-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사회의 조화로운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유도
- 결과적으로 예, 즉 인간관계의 조화를 통해 사회의 조화를 이루려는 데에 장애가 됨
- 부자(父子) 사이 왕위 다툼이 일어난 위(衛)나라에서는 정명을 통한 예의 실현이 정치의 시작이라 강조

3. 고대문물의 전수자, 실천가, 스승

☑ 술이부작(述而不作), 고대 문물의 전수자

[술이부작, 신이호고]
 [述而不作, 信而好古]

나는 옛 것을 배워 전하기만 할 뿐 창작하지 않으며, 옛 것을 믿고 좋아하면서 내 자신을 은연중에 은나라 현인인 노팽과 비교해본다.

『논어(論語)』, 「술이(述而)」

- 술이부작(述而不作)
 - 옛 것을 배워 전하기만 할 뿐 창작하지 않음
- 공자는 새로운 것을 창작하기 보다는 옛 것을 믿고 좋아하였을 뿐이라며, “무엇인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창작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나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힘
- 자신의 역할을 고대 문물의 전수자로 자임
- 광(匡) 지방에서 보여준 문물의 전수자로서의 자부심

문왕이 이미 돌아가시고 예약과 제도가 여기 나에게 있다. 하늘이 장차 이 예약과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뒤에 태어난 내가 이 예약과 제도에 관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하늘이 이 예약과 제도를 없애고자 하지 않는데 광 지방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논어(論語)』, 「자한(子罕)」

- 하늘이 자신에게 예약과 제도를 정비할 책임을 부여함

3. 고대문물의 전수자, 실천가, 스승

☉ 술이부작(述而不作), 고대 문물의 전수자

- 하(夏)나라, 은(殷)나라, 주(周)나라, 삼대(三代)의 예법을 잘 알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라의 예에 대해 내가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라의 후예인 기나라의 자료만으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은나라의 예에 대해 내가 말할 수는 있지만 은나라의 후예인 송나라의 자료만으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이는 문헌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만약 자료가 충분하다면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논어(論語)』, 「팔일(八佾)」

- 공자 자신이 이미 하은주의 예법에 대해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할 뿐이라는 것
- 현재 전해지고 있는 자료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더 많다는 의미

“주나라는 하나라와 은나라 두 왕조를 본뒀으며, 문물제도가 더욱 찬란하다.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논어(論語)』, 「팔일(八佾)」

- 자신이 속한 주나라의 초기 문물제도를 따르고자 하기는 하였지만, 시대에 따른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나라의 통치에 응용하려고 하였던 것
- 문물제도의 전수자로서 자임한 것이 과거의 문물제도를 현실 정치의 개혁에 반영하려는 의지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줌

3. 고대문물의 전수자, 실천가, 스승

① 실천가, 말이나 글보다 행동을

[행유여력, 즉이학문]
 [行有餘力, 則以學文]

“공부하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집밖에 나가면 웃어른께 공손히 행동하며, 행동을 신중하게 해서 믿음을 주어야 하며, 널리 대중들을 두루 사랑하며 어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이런 일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고서도 남은 여력이 있을 때에야 글을 배우는 것이다.”

『논어(論語)』, 「학이(學而)」

- 공자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행동은 신중하게 하는 등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이후에 글을 배우라고 말함
- 말이나 글, 혹은 논리보다 실천을 중요하게 여긴 실천가로서의 공자의 면모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구절

[불위여우]
 [不違如愚]

“내가 제자인 안회와 함께 하루 종일 이야기하여도 그저 듣기만 할 뿐 되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어리석은 사람 같았다.

그런데 그가 물러난 뒤 그의 사생활을 살펴보니 내가 말하는 삶의 올바른 도리를 밝혀내고 있었다. 안회는 전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

『논어(論語)』, 「위정(爲政)」

- 공자가 안회를 아끼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구절
-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안회의 실천하는 자세를 높이 평가
- 안회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음

3. 고대문물의 전수자, 실천가, 스승

① 실천가, 말이나 글보다 행동을

제자인 재여가 낮잠을 자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만든 담은 흙손질을 할 수 없다. 내가 재여에 대해 무엇을 꾸짖겠는가?”

그리고 또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처음 사람을 대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믿었지만 지금 내가 사람을 대할 때에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살펴보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 판단의 변화는 재여로 인하여 바뀐 것이다.”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

- 공자가 재여의 행동을 보고 크게 실망함
-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의 행동을 살펴보아야 함을 확인하게 됨
- 공자가 행동이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
-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천명하는 것

[자불어괴력난신.]

[子不語怪力亂神.]

“공자는 괴상한 일, 무력을 사용하는 일, 덕을 어지럽히는 일, 알 수 없는 귀신에 대한 일의 네 가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자로가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묻자 공자가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답하였다.

다시 “감히 죽음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자, “살아있다는 것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답하였다.

『논어(論語)』, 「술이(述而)」

-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공자의 자세

3. 고대문물의 전수자, 실천가, 스승

① 실천가, 말이나 글보다 행동을

- 공자의 가르침은 실천을 중시하는 행위 중심
- 배움의 목적이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있음
- 배움과 행동의 일치를 꿈꾸는 학행합일(學行合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이상으로 함
- 공자가 강조하는 인격형성 중심, 실천중심의 교육은 현대사회의 단편적이고 지식중심적인 교육과 대비되는 것



3. 고대문물의 전수자, 실천가, 스승

㉠ 공자, 영원한 스승의 본보기



우러러볼수록 더욱더 높은 곳에 계시고, 뚫어볼수록 더욱더 굳세며, 바라보면 앞에 계시다가 어느덧 뒤에 계신다.

선생님께서서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잘 인도해주시고 학문으로 나를 넓혀주시고 예로 우리를 단속해 주셨다.

도중에 배움을 그만두려 해도 그만둘 수 없어 이미 내 재주를 다 했는데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앞에 우뚝 서 있기에 비록 그것을 따르고자 하지만 따라갈 방법이 없다.

『논어(論語)』, 「자한(子罕)」

- 제자 안연이 공자를 설명한 말
- 스승으로서의 공자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
- 안연의 탄식은 안연이 어느 누구보다도 공자의 모습을 닮고자 하였고 공자를 따라잡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

자공이 “저는 어느 정도의 인물입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너는 그릇이다.”라고 말했다.

자공이 다시 “어떤 그릇입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종묘의 제사에 쓰이는 옥으로 장식한 중요한 기물인 호련과 같은 인물이다.”라고 말했다.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

3. 고대문물의 전수자, 실천가, 스승

☉ 공자, 영원한 스승의 본보기

- 군자불기(君子不器)
- 군자는 폭넓은 사유를 통해 다방면에 조예가 깊은 전인적 교양인
-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그릇 같은 존재일 수 없음
- 그릇과 같다는 것은 군자가 아니라는 말
- 이 말을 들은 자공의 반응은 스승 공자에 대한 무한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신분상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

“육포 묶음 열 가닥 이상의 작은 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 대해 나는 가르침을 주지 않은 적이 없다.”

『논어(論語)』, 「술이(述而)」

“타고난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살면서 터득한 습성은 서로 차이가 많이 난다.”

『논어(論語)』, 「양화(陽貨)」

- 학생의 신분이나 귀천의 차별을 두지 않음
- 사람을 대함에 있어 선입견이나 차별을 갖지 않음
- 누구나 본래 동등한 것이며 다만 그들이 후천적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신분차별이 있는 사회에서 학생을 차별하지 않았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보다 후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 만세사표(萬世師表)
 - 만세사표(영원한 스승의 본보기)
 - 공자를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표현